



말에 담은 진심으로 마음에 다가서다

아나운서 신동진

부드러운 목소리에 또렷한 발음, 25년 동안
공영방송 MBC에 몸담았던 아나운서답게
신동진의 첫인상은 음성으로 먼저 각인된다.
말 한마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던 그가
방송국을 나와 새로운 출발선에서 뛰고 있다.

프로 방송인의 새출발

그에게 MBC는 마음의 고향이었다. 1996년 입사 후 2020년
 명예퇴직하기까지 25년을 한곳에서 머무른 것이다. 불과 몇
년 전만 해도 그는 오래 몸담았던 일터에서 정년까지 지내
리라 여겼다. 하지만 직장인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
설계해보고 싶은 생각도 마음 한 켠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다.
늦둥이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새 출발을 결심하
는 데 영향을 미쳤다.

그렇게 2020년 12월 31일부로 MBC를 퇴사하고 프리랜서
아나운서 활동을 시작했다. 감사하게도 이듬해 1월부터 국회
방송과 EBS 등에서 뉴스 진행을 비롯한 프로그램을 맡았다.
덕분에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아이와 더 긴밀하게 시간
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. 흔히 육아는 체력전이라고 하지만,
젊은 아빠 못지않게 아들과 몸으로 놀아주는 일도 잊지 않는
다. 5월에 두 돌을 맞은 아들은 ‘아빠 바라기’로 무럭무럭 자
라는 중이다.



Profile

- 1996년 문화방송(MBC) 입사
-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역임
- 국어문화 발전 기여 공로로
2008·2014·2018년 문체부장관상 수상
- 2018년 대한민국 아나운서대상 장기변상 수상



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회식

고양시와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

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시작하며 또 다른 변화도 생겼
다. 2년 전, 고양시로 거처를 옮겨 고양시민이 된 것이다. 신
아나운서는 고양시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
을 보내고 있다. 고양시에 자신의 이름을 건 스피치아카데미
를 오픈했다. 올 봄에는 고양시민대학에서 시민들 대상으로
‘주민자치회 회의 진행스킬 UP 강의’를 진행한 데 이어, ‘2022
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’ 개·폐회식의 사회도 맡았다.

66

시민강사 1호로 주민자치회 분들에게
스피치 강의를 진행했어요.
흔하지 않은 경험이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
여러모로 고양시에서 의미 있는
기획을 많이 하고 있어서, 저도 의욕적으로
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

99

요즘은 「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365」 프로그램 준비에 한창
이다. 고양시민과 지역 어르신, 이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
램은 각자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구성하여 15분간 스피치 하는
방식으로 꾸려진다. 이를 위해 손수 수업자료도 만들었다. 말하
기 전문가로서 교육에 담고 싶은 핵심은 ‘진정성’이다. 방송인처
럼 발음이 또렷하지 않아도, 말을 통해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이
짐이 있다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신 아나운서
의 지론. 아나운서 본연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고양시민을 위한
스피치 강의에도 정성을 쏟는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.